

# 가을철 과수원 관리, 이듬해 과일 품질 높여

### 사과, 색 잘 들도록 잎 따줘야... 배는 나무당 2~3회 나눠 수확해 크기 유지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기온 탓에 일부 과일의 색이 잘 들지 않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현)은 막바지 수확이 한창인 과일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기술을 소개하고, 이듬해 농사를 좌우하는 가을철 과수원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수원 관리에 나선 농업인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사과는 잎이 겹칠 때 색이 든(착색) 정도를 살펴 2~3회 나눠 따줘야 색이 잘 든다. 잎을 한 번에 많이 따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전체 30% 이상 따지 않도록 주의한다. 색이 덜 든 열매는 이리저리 방향을 돌려 햇빛을 고루 받을 수 있게 한다. 색이 일부 든 열매는 바다에 반사필름을 깔아 주면 좋다. 증생증은 수확 2주 전, 만생증은 수확 한 달 전쯤 깔아주면 햇빛 데임을 피할 수 있다.

배는 직접 판매용, 시장 출하용, 저장용 등 용도에 따라 수확시기를 달리 한다. 큰 열매(대과) 생산 비율을 높으려면 바깥쪽부터 한 나무당 3~5일 간격으로 2~3회 나눠 수확한다. 이듬해 생육을 돕는 가을거름은 수확 직전에 주면 열매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

다. 따라서 만생증은 10월 중순에 비료를 주는 것이 좋다. 비료는 비가 내리기 직전 주고, 비가 오지 않으면 비료 살포 뒤 물을 충분히 공급한다. 감귤은 열매가 커지고 당도가 오를 수 있도록 모양이 틀어지거나, 작은 열매(극소과)를 솎아준다. 열매 터짐(열과)을 예방하려면 토양 수분 함량이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토양 온도가 12도(C) 이하로 떨어지

면 뿌리의 양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므로, 수확 시기가 빠른 극조생, 조생 온 주밀감은 수확 직후나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가을 비료를 뿌려 준다. 수확기에 색이 늦게 들거나, 껍질이 들뜨는 열매(부피과)가 많이 발생하는 과수원은 토양에 질소 성분이 많을 수 있으므로 비료량을 조절한다. 단감은 색이 잘 들고 충분히 익은 것부터 3~4회 나눠 수확한다. 열매가

커지면서 영양분 소모로 쇠약해진 나무에는 자람새를 회복하고 양분이 충분히 저장되도록 가을거름(‘부유’ 품종 기준: 질소 0~6kg/10a, 칼리 3~4.2kg/10a)을 준다. 수확기 탄저병은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열매 떨어짐을 유발한다. 농가에서는 비 내린 직후 탄저병을 꼼꼼히 방제한다.

가을에 발생하는 태풍과 비 피해에 대비해 나무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미리 주변 물길을 정비한다.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흔들리는 가지는 고정하고, 늘어진 가지 밑에는 받침대를 세워준다. 강한 바람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방풍망을 설치한다.

또한, 태풍과 비가 지나간 뒤 쓰러진 나무는 즉시 세워 버팀목을 받쳐주고, 잎과 가지에 난 상처를 통해 병이 감염되지 않도록 살균제를 뿌려 준다. 세력이 약해진 나무는 요소나 제4종 복합비료를 뿌려 세력 회복을 돕는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장선화 과장은 “가을철 과수원 관리에 따라 이듬해 농사 성과가 갈릴 수 있으므로, 이맘때 세심한 관리 요령 자료를 영농 현장에 배포해 고품질 과일 안정 생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지난 11일 본관 2층 도전실에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간담회를 진행했다.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본격 스타트’

### 전북경진원, 참여기업 사전간담회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지난 11일 본관 2층 도전실에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간담회를 진행했다.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대회로 2022년 울산대회 이후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CEO와 국내 기업인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을 도모, 한인사회와 유대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행사이다.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의 기업들의 기대를 한껏 받는 프로그램은 기업전시회와 1:1비즈니스

미팅이다. 지난 6월 시작한 참가자 등록은 마감 시한까지 치열한 경쟁을 보인 것이 반영이다.

경진원은 도내 참여기업의 효과적인 상담 전략 수립과 팀과 가이드 제공하고, 최대 성과 창출 지원 및 지속 성장을 도모 위한 기업 준비 상황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전간담회는 78개 기업 90여 명의 임직원 참여한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부의 ‘맞춤형 수출기반 보험’, KOTRA 전북지원단의 KOTRA 무역관 활용 전략 대한 강의를 통해 참여기업의 대회 참여 성과 극대화를 도왔다.

/김욱기기자

## 신동진벼 생산단수 566Kg/10a, 공공비축매입 제외대상 아냐

### 민주 이원택 의원, “신동진벼 공공비축매입 제외대상은 전북대표브랜드 죽이기에 불과”

신동진벼의 생산단수가 공공비축매입대상 기준인 570kg/10a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4개년 간 전북지역 3개소와 전남지역 2개소에서 신동진벼의 지역적응시험 시행 결과 신동진벼의 생산단수를 572kg/10a라고 밝혔지만, 같은 기간 전북과 전남의 신동진벼 재배면적을 가중치로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

566kg/10a로 계산됐다. 지역적응시험 지역별 신동진벼의 평균생산단수는 전북지역 3개소 각각 522, 529, 566kg/10a이고, 전남지역 2개소가 각각 610, 630kg/10a로 나타났다. 이를 단순 산술평균으로 계산하면 572kg/10a가 나온다. 하지만 올바른 생산단수를 구하기는 전북지역은 3개소, 전남지역은 2개소에서 진행했다는 점과 신동진벼가 전북지역에서 더 많이 재배되는 점을 고려해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지역과 전남지역에서 재배된 신

동진벼의 비율은 '20년 기준 각각 63.9%, 36.1%였으며, 2023년의 경우 69.4%와 30.6%로 전북에서 더 많이 재배됐다. 이를 같은 년도 기준 시도별 평균에 가중치로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 신동진벼의 생산단수는 566kg/10a로 조정됐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신동진벼와 참동진벼를 대상으로 전북지역 3개소에서 진행된 지역적응시험에서 신동진벼의 생산단수는 515kg/10a로 참동진벼의 528kg/10a인 참동진벼의 생산단수보다 8kg/10a 적었다.

더불어, 신동진벼는 잎도열병 및 흰잎마름병 등 병충해에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벼 품종설명서에 따르면, 신동진벼의 경우 참동진벼보다 잎도열병에서는 더 강하다. 또한, 신동진벼의 경우 단백질함량과 밥맛관능검정에 참동진벼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백미완전미율의 경우 80.2%인 참동진벼보다 6.2% 높은 86.4%이다.

이 의원은 “신동진벼는 1999년 처음 생산되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벼 생산역사를 함께해온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브랜드다.”라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 ‘새만금 탄소 중립, 해조류 블루카본에서 답을 찾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11일 ‘해조류 육상 스마트팜 시장 동향과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해조류 분야 전문가인 원광대학교 최한길 교수가 참석해 해조류 산업 동향과 시장 성장 가능성 및 스마트 육상양식 기술 도입의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한길 교수는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간한 ‘2023년 글로벌 해조류 시장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2030년까지 해조류 시장 가치는 약 15조9,000억원(1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식물을 넘어 애완동물 사료, 바이오 섬유 및 플라스틱,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미역 등 해조류가 신규 탄소흡수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탄소중립, 기후 위기 대응책으로

해조류 산업을 새만금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재언했다.

이어 “최근 해일 등 자연 재난과 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해조류 품질, 공급 물량 등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육상 스마트팜에 주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육상양식 연구개발 및 시설 구축 등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파래류 등 다양한 품종을 양식, 제품화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김, 미역 등 종묘 생산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육상 해조류 양식 종의 다품종화 및 스마트 양식 기술 도입 등 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는 김이 특이나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해서 공급이 가능한 맞춤형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만호기자

## 도시재생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위한 도시재생 인재양성 아카데미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는 17일 오후 1시 전북개발공사 대강당에서 도시재생 인재양성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인재양성 아카데미는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정책 방향 및 제도 안내, 사업 관련 정보 제공, 타 시군 사업 사례 소개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상반기 도시재생 인재양성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6월과 7월에 열린강좌를 개최, 정부의 변화하는 도시재생 정책 및 제도, 국내의 도시재생 사업 사례 등을 소개하여 참석자 150여명으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하반기 도시재생 인재양성 아카데미에서는 국토교통부 신규공모사업인 ‘뉴 빌리지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 및 계획수립 방법,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대응을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